

http://dx.doi.org/10.17703/JCCT.2024.10.4.241

JCCT 2024-7-27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과 사회적지지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adolescents' perceived family strength and social support on their adaptation to school life

김태량*, 정영미**

Kim Tae Ryang*, Jeong Yeong Mi**

요약 본 연구는 청소년의 가족건강성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구·경북에 소재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대상으로 2023년 5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측이 없는 768명의 자료에 대해 SPSS 21.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은 학교생활적응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은 사회적지지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적지지는 학교생활적응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는 부분매개효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청소년이 건강한 가족관계에 기초해서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실증적인 근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함의를 가진다. 또한 가정에서 긍정적인 가족기능을 통해 청소년이 사회적지지를 이끌어내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가족상담 프로그램이 원용되는 데 실천적 근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청소년, 가족건강성, 사회적지지, 학교생활적응, 부분매개효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sought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family strength and school life adjustment. For this purpose, a survey was conducted from May 2023 to June 2023 on youth attending middle and high schools in Daegu and Gyeongbuk, and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on the data of 768 people without missing data using SPSS 21.0 pro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family strength perceived by adolescents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school life adaptation. Second, the family strength perceived by adolescents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social support. Third, social support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and significant effect on school life adaptation. Fourth, social support showed a partial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perceived family strength and school life adjustment. These research results have implications in that they provide empirical evidence to help adolescents adapt well to school life based on healthy family relationships. In addition, we hope that this will serve as a practical basis for the use of parent education programs and family counseling programs that help adolescents adapt well to school life by eliciting social support through positive family functions at home.

Key words : Adolescent, Family strength, Social support, School life adaptation, Partial mediation effect

*정회원, 경남도립거창대학 사회복지보육학부 초빙교수
(제1저자)

**정회원, 경남도립거창대학 사회복지보육학부 초빙교수
(교신저자)

접수일: 2024년 4월 20일, 수정완료일: 2024년 5월 22일

게재확정일: 2024년 6월 10일

Received: April 20, 2024 / Revised: May 22, 2024

Accepted: June 10, 2024

*Corresponding Author: mongsil57@hanmail.net

Dept. Visiting Professor of Child Care & Welfare in
Gyeongnam Provincial Geochang College, Korea

1. 서론

청소년기는 부모로부터 심리적 독립을 준비하고,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여 성인기 사회적응에 필요한 발달과제를 성취하는 시기이다. 이에 청소년은 아동기에 성취한 과업과는 다른 역할변화에 직면하고, 새로운 학교 환경에 적응을 요구받는다. 학교는 청소년의 사회화를 담당하는 장소로서, 청소년의 대부분은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 특히 학교는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고 발달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사회규범을 지도하고, 대인관계의 기초를 형성하게 만드는 중요한 환경체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은 개인의 전 생애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차원에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1].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의 상당수는 대학입시 중심의 교육열과 높은 학업성취의 요구에 따른 중압감이나 가족기능의 약화 등으로 학교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교생활적응이란 청소년이 학교 환경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심리적 안정감에 기초해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원활한 과업 수행을 통해 주변의 요구나 기대를 잘 수용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2]. 이에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청소년은 학교환경을 바라보는 감정이나 태도 측면에서 긍정적 동기가 촉진되어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높은 학업성취로 이어져서 성인기 성공적인 사회적응을 예측하게 해준다[3]. 반면에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은 낮은 집중력과 학업성취를 경험하여 자신과 타인에 대해 실패감과 적대감을 유발한다[4]. 또한 이들은 자아존중감의 저하와 고립감, 우울 등 정서적 측면에서 내재화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고, 학교폭력, 무단결석, 가출, 공격적인 행동이나 비행 등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겪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5]. 따라서 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탈선하는 현상은 사회적 이슈이고, 학교적응을 돕는 것은 사회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6]. 이러한 맥락에서 청소년이 학교생활을 자신의 요구에 맞게 조정하고 변화시켜 잘 적응해 가도록 환경적 요인을 찾아보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주로 개인과 사회·환경적 요인이 보고되어 왔으며, 주요 사회·환경적 요인에는 최초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으로 가정이 지목되고 있다[7]. 이것은 청소년이 가정에서

신체적·정서적 성장과 사회성의 기초를 배우면서 자신의 삶을 개척하는 틀과 역량을 갖추기 때문이다. 특히 청소년이 학교생활에서 경험하는 부적응 문제는 가족 내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았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가족의 건강성 요인에서 찾아야 한다는 관점을 적용하여 가족건강성을 주요한 변인으로 고려하고 있다[8]. 또한 가족건강성은 가족이 갖는 구조나 형태적 차원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가족관계에 기초하여 가족이 당면한 문제를 극복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가족기능을 강조한다[9]. 긍정적인 가족기능이란 가족구성원들의 개별성을 인정하고 응집된 유대감을 바탕으로 가족의 가치를 공유하며, 긍정적 의사소통을 통해 가족의 위기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8].

청소년은 건강한 가족관계에서 신뢰감과 친밀감을 느끼고, 형성된 정서적 안정감은 학교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3]. 또한 청소년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부적응 문제는 개인의 문제로 바라보기보다는 오히려 가족기능의 문제로 제시하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8][10]. 이러한 결과는 가족이 가지는 건강한 기능과 안정적인 역할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과 성공적인 사회적 적응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렇듯 청소년이 가정에서 느끼는 심리적 안정감은 일상생활의 적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이 지각하는 건강한 가족환경은 학교생활적응과 밀접한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족건강성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학교생활적응에 선행하는 환경적 요인으로서, 심도 있는 학교적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가족건강성은 청소년의 심리적, 환경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초점을 두고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왜냐하면, 건강한 가족기능은 가족구성원 간에 긴밀한 유대감과 상호 지지적인 의사소통을 촉진시키고, 갈등과 당면한 문제해결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건강한 가족생활을 경험해 온 청소년은 부모나 친구, 교사로부터 인정받는 경향이 많고 정신적, 물질적 측면에서는 사회적지지를 인식하는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1]. 사회적지지는 대인관계로부터 획득하는 긍정적 자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주변의 의미 있는 사람

들이 표현하는 긍정적 감정이나 물질적 도움, 개인의 행동에 대한 인정, 정보제공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청소년이 건강한 가족으로부터 경험하는 사회적지지는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사건을 재평가하여 개인의 정서적 반응과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준다[12]. 특히 건강한 가족은 가족구성원 간에 상호 지지적인 관계를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격 형성에 영향을 주고, 결국 사회적으로 타인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한다[13]. 결국 청소년이 인식하는 사회적지지는 개인이 생활하는 건강한 가족기능에서 획득되는 자원이다. 따라서 가족의 건강성은 사회적지지의 주요 제공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사회적응을 예언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적지지는 1970년대 예방심리학이 출현하면서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아 왔고, 개인의 정상적 발달을 도와주고 행동이나 적응상의 문제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는 사회적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개인의 부정적 평가와 상호작용하는 타인의 시선이다. 청소년은 자신이 느끼는 사회적지지에 대한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이를 받아들이고, 주변 사람들의 차별적인 시선은 학교적응의 저하와 심리적 고통을 야기한다[14]. 반면에 사회적지지는 개인의 심리적·환경적 적응을 돕고 좌절을 극복하여 부적응으로부터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해준다는 측면에서 중요성이 있다[13]. 이에 사회적지지는 청소년이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긍정적 자원을 받아들이고, 자신이 처한 환경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방향을 제공하여 정서적 적응과 학교생활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핵심요인이다[15]. 따라서 청소년은 주요 타자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는다는 것을 인식할수록 친구관계, 교사관계, 학교 수업에서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6]. 이는 청소년이 평가하는 사회적지지는 대인관계를 통해 획득하는 것으로서, 개인이 자기평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켜 학교생활 적응력을 높여준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사회적지지는 학교생활적응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을 가지는 적응수준과 적응행동, 학업성취 등의 긍정적 변인들과 정적으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사회적지지는 일반적 혹은 문제 상황에서 청소년의 심리적 정서와 학교생활적응을 높여주는 변인이 되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정리하면, 청소년기는 아동기에 비해 더 많은 활동이 요구되므로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미시체계는 그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과 학교생활적응 간에 인과관계는 그동안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그러나 두 변인 간의 관계에서 매개요인을 찾아보는 것은 청소년을 위한 가족정책 및 서비스를 수립하는 데 많은 함의를 제공해 줄 수 있으므로 보다 면밀한 탐색이 필요하다. 즉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에 대한 인식 수준은 사회적지지에 대한 지각 수준으로 연결될 수 있고, 이러한 경로에서 학교생활적응과도 정적으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높여주기 위해 가족건강성과 사회적지지가 갖는 역할과 내포하는 함의를 더욱 확장해서 탐색해 봄으로써 깊이 있는 학문적 이해를 비롯해서 학교와 지역사회 차원에서 실천하는 데 필요한 효과적인 개입방안의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가족건강성은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가족건강성은 사회적지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사회적 지지는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4> 사회적지지는 가족건강성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지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청소년이 인식하는 가족건강성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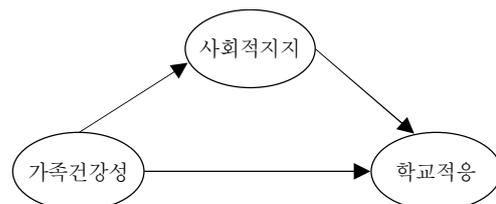


그림 1. 연구 모형
Figure 1. Research model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에서는 대구·경북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 1, 2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은 의도적 표집방법을 적용하였고, 자료수집의 기간은 2023년 5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약 2개월 동안 이루어졌다. 또한 자료의 정확한 수집을 위해 연구자가 학교를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과 취지, 비밀보장, 윤리적 문제 등을 설명한 다음 설문지 배부를 통해 총 805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고, 이 중 결측이나 자료로서 가치가 없는 설문지 37부를 제외하고 768부를 최종 자료 분석에 투입하였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earch subjects

구분	내용	빈도(%)
성별	남	370(48.2)
	여	398(51.8)
학년	중학교 1학년	125(16.3)
	중학교 2학년	130(16.9)
	중학교 3학년	152(19.8)
	고등학교 1학년	175(22.8)
	고등학교 2학년	186(24.2)
경제수준	상	62(8.1)
	중	657(85.5)
	하	49(6.4)

표1에서 성별을 살펴보면, 여자가 398명(51.8%)으로 남자 370명(48.2%)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고, 학년은 중학교 1학년 125명(16.3%), 중학교 2학년 130명(16.9%), 중학교 3학년 152명(19.8%), 고등학교 1학년 175명(22.8%), 고등학교 2학년 186명(24.2%)으로 분포를 보여주었다. 경제적 수준은 중 657명(85.5%), 상 62명(8.1%), 하 49명(6.4%)의 순으로 나타났다.

3. 측정도구

1) 가족건강성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을 측정하기 위해 최미숙(2013)에 의해 타당화된 척도를 사용하였다[17]. 이 척도는 유대감,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 가치공유에 각 5문항씩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별 문항은 5점의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계수는 .946으로 나타났다.

2) 사회적지지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사회적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조준환(2010)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타당성을 검증한 척도를 사용하였다[18]. 이 척도는 부모지지, 또래지지, 교사지지 등 3개의 하위요인에 각 5문항씩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의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계수는 .906으로 나타났다.

3) 학교생활적응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강가영(2014)이 수정·보완하여 타당화된 척도를 사용하였다[19]. 이 척도는 학교생활적응에 대해 학습활동, 교우관계, 학교규칙, 교사관계에 각 5문항씩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별 문항들은 5점의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계수는 .926으로 나타났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첫째,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진행하였다. 둘째, 연구모형을 구성하는 변수들의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고자 신뢰도를 분석하였고, 주요 변인들 간에 다중공선성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Baron &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 3단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은 Sobel test를 실시하여 확인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주요변인의 기술통계

주요변인의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가족건강성의 평균은 3.60($SD=.646$), 사회적지지의 평균은 3.28($SD=.444$), 학교생활적응의 평균은 3.73($SD=.560$)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요변인들의 왜도는 -.603에서 -.418로 나타났고, 첨도는 .324에서 1.713의 범위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요변수에서 왜도의 절댓값은 모두 3이하로, 첨도의 절댓값은 모두 8이하로 나타나고 있어 정규분포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표 2. 주요변인 간의 기술통계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between major variables

구분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가족건강성	3.60	.646	-.517	.324
사회적지지	3.28	.444	-.603	1.713
학교생활적응	3.73	.560	-.418	.525

*p<.05, **p<.01, ***p<.001

2. 주요변인 간의 상관관계

연구모형을 구성하는 주요변인들 간에 다중공선성의 여부를 확인해보고자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주요변수들 간에 상관관계는 .595 이상부터 .626 이하의 범위에서 정(+)적인 방향으로 유의한 상관관계(p<.001)를 보여주고 있어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3. 주요변인 간의 상관관계

Table 3. Correlation between major variables

구분	가족건강성	사회적지지	학교생활적응
가족건강성	1		
사회적지지	.626***	1	
학교생활적응	.595***	.613***	1

*p<.05, **p<.01, ***p<.001

3. 가족건강성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주요변인들의 관계에서 다중공선성 문제의 발생 여부를 확인해본 결과, 모든 변인에서 공차는 .01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고, 분산팽창계수는 10보다 작은 것으로 확인되어, 주요 변인들의 관계에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Baron & Kenny(1986)가 제안한 3단계 매개효과 검증 방식을 적용하여 진행한 단계적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4와 같다. 회귀분석 1단계에서는 가족건강성이 학교생활적응($\beta = .626, p < .001$)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39.2%($F = 493.661, p < .001$)로 나타났다[Baron & Kenny, 1986]. 회귀분석 2단계에서는 가족건강성이 사회적지지($\beta = .595, p < .001$)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35.4%($F = 420.257, p < .001$)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3단계에서는 종속변수인 학교생활적응에 가족건강성과 사회적지지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투입한 결과 가족건강성은 학교생활적응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beta = .405, p < .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48.1%($F = 354.716, p < .001$)로 증가하였다. 또한 가족건강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1단계($\beta = .626, p < .001$)에 비해 3단계($\beta = .405, p < .001$)에서 낮아지는 효과를 보여주었다. 아울러 매개변수인 사회적지지는 학교생활적응에 정(+)적으로 유의한($\beta = .372, p < .001$)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가족건강성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는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표 4. 주요변인 매개효과

Table 4. Mediating effect of major variables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B(SE)	β	B(SE)	β	B(SE)	β	공차 VIF
가족건강성	.543(.024)	.626***	.410(.020)	.595***	.351(.028)	.405***	.646 1.549
사회적지지					.493(.041)	.372***	.646 1.549
R ²	.392		.354		.481		
수정R ²	.391		.353		.480		
F	493.661***		420.257***		354.716***		

*p<.05, **p<.01, ***p<.001

사회적지지가 가지는 매개효과의 크기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해보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이 나타났다. 즉 가족건강성에서 사회적지지로 가는 경로와 사회적지지에서 학교생활적응으로 가는 경로에서 Z값은 9.989(p < .001)로 나타나고 있어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Sobel 검증을 통한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Table 5. Verification of the significance of mediating effects through Sobel test

경로	Z
가족건강성→사회적지지→학교적응	9.989***

*p<.05, **p<.01, ***p<.001

IV. 논 의

본 연구는 청소년의 가족건강성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해보고,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효과적인 개입을 실천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건강성은 학교적응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이 건강한 가족기능에 따라 긍정적인 의사소통과 사회

화를 학습하고, 또래나 교사와의 친밀한 관계형성을 통해 학교생활적응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3][8][10]와 맥을 같이한다. 즉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은 학교생활적응의 증진에 필요한 긍정적 변인이 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필요한 개입은 개인적 요인에 치중하는 것에서 벗어나 가족과 학교가 공동으로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청소년은 학교생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나 위기상황에 극복하는 능력을 이미 가정에서 배우게 된다. 이에 가족구성원들은 가족이 당면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해결함으로써 건강한 가족기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부모가 지나치게 자녀를 과보호하거나 학습에 관심을 가지고 경쟁으로 내몰게 되면 학교생활적응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가족체계와 구성원의 관계는 심리적·정서적인 안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나 지역사회는 건강한 가족기능이 가진 보호요인을 인식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가족정책을 제안하고, 실제 개입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둘째, 가족건강성은 사회적지지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이 건강한 가족 내에서 사랑과 이해에 기반하여 정서적 욕구를 충족하고, 자신의 의사결정이 존중받고 있음을 지각하는 것이 높아지면, 타인이 주는 사회적지지를 더 높게 지각한다는 연구결과[11][13]와 맥을 같이한다. 즉 청소년은 가족의 경제적 안정감을 바탕으로 개방적인 대화의 시간을 많이 경험하고, 상호 신뢰와 수용적인 가족문화에 익숙해질수록 자신을 둘러싼 중요한 타인들로부터 사회적지지를 더욱 쉽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가족체계의 안정적인 기능을 의미하는 가족건강성이 청소년의 사회적지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가족 상담에서는 가족의 긍정적 기능과 개인의 자아개발을 촉진하여 균형 있는 공동체적 유대감을 강화해줄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이 소외나 적응상의 어려움을 겪을 때 주변의 지지와 격려를 통해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적지지는 학교생활적응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이 부모나 형제, 또래, 교사 등의 중요한 타인으

로부터 정서적·물질적 지지를 풍부하게 제공받을수록 보다 긍정적인 적응행동을 통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게 된다는 연구결과[14][15][20]와 맥을 같이한다. 즉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에는 사회적으로 지지받고 싶은 욕구가 있으며, 청소년이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중요한 타자들의 관심과 배려, 인격적인 존중과 칭찬, 객관적인 평가 등은 학교생활적응을 높여주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청소년이 직면하는 주된 스트레스는 가정과 학교라는 공간에서 과도한 학업성취의 요구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어, 문제 해결을 위한 주변의 조언이나 물질적 도움, 정서적 안정 등 다양한 정보의 제공원은 학교생활적응을 높여준다는 것을 의미한다[21]. 따라서 청소년이 경험하는 학교생활적응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주변의 중요한 타인들이 제공하는 긍정적 지지를 더 많이 지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개입이 필요하다. 특히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호 연계하여 청소년의 대인관계형성과 상호작용 능력을 높여주기 위해 대화기술 및 자기표현훈련 프로그램이나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넷째,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는 부분매개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청소년이 인식하는 가족건강성은 학교생활적응을 높여주는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음을 보여주었고, 사회적지지를 경유하는 경로에서도 간접적인 영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가족건강성은 가족 내에서 청소년의 바람직한 사회화를 이루고 의미 있는 사람들과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촉진시켜 학교생활적응을 높여준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청소년은 건강한 가족이 형성하는 가족문화와 친밀한 유대감을 경험하여 가족과 자신의 가치체계를 통합한 심리적 독립을 높이고, 주변의 의미 있는 타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지와 사회적 자원을 확대해갈 수 있을 때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능력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학교나 지역사회에서는 가족이 가지는 긍정적 가족기능을 강화하여 청소년이 스트레스나 갈등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여 원활한 학교생활적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고려하는 상담적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 사회적지지, 학교생활적응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고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관련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학교생활적응은 가족건강성, 사회적지지 변인과 정적인 방향에서 인과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건강성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는 부분매개효과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성공적인 학교생활이 가능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과 사회적지지 요인을 동시에 고려한 사회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바라보는 관점은 부모보다는 자녀가 지각하는 관점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가족건강성과 사회적지지는 치열한 경쟁과 격동의 사회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의 적응력을 높여준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사회적 개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를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대구·경북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이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을 모집단으로 설정하고, 표본을 확장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족건강성과 사회적지지를 각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여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여 더욱 심도 있는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1] Bagwell, C. L., Newcomb, A. F., and Bukowski, W. M. "Preadolescent friendship and peer rejection as predictors of adult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Vol, 69, No, 1, pp. 140-153. 1998.
- [2] Baker, J. A., Dilly, L. J., Aupperlee, J. L., and Patil, S. A. "The developmental context of school satisfaction: Schools as psychologically healthy environments." *School Psychology Quarterly*, Vol, 18, No, 2, pp. 206-221. 2013.
- [3] Y. J. Jung. "A Study on the Effect of Family Strength on School Adjustment of Elementary Students and the Mediating Effect of Problem Solving Skill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7, No, 8, pp. 90-97. DOI : 10.5392/JKCA.2017.17.08.090
- [4] S. H. Jun. "School Adjustment, Self-Esteem, and Juvenile Delinquency across Three Age Groups," *Forum For Youth Culture*, Vol, 57, pp. 73-97. 2019. DOI : 10.17854/ffyc.2019.01.57.73
- [5] M. I. Kim and K. M. Lim. "The Influence of Ego-Resilience on School Adjustment in Youth: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Participation,"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Vol. 10, No, 3, pp. 65-91. 2013.
- [6] U. B. Shim. "A Meta-Analysis of School Maladjustment-Focused on Related Triggering Variables and the Protective Variables,"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Korea University*, 2015.
- [7] Amato, R. R., and Fowler, F. "Parenting practices, child adjustment and family diversit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 64, pp. 703-716. 2002.
- [8] T. R. Kim and T. Y. Shin. "The Mediating Effe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in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Strength and School Adjustment of Adolescent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HSS21)*, Vol, 12, No, 1, pp. 2123-2138. 2021.
- [9] A. K. Kim. "The Mediating Effects of Gratitude Disposition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Strength and Life Satisfaction in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JLCCI)*, Vol, 19, No, 9, pp. 47-66. 2019. DOI : 10.22251/jlcci.2019.19.9.47
- [10] H. J. Kim and H. K. Lee. "The Relationship of Family Strength and School Maladjustment Perceived by Adolescents," *Family and Culture*, Vol, 23, No, 1, pp. 77-104. 2011. DOI : 10.21478/family.23.1.201103.003
- [11] J. W. Kim and J. H. Lee.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between Family Strength and Adult Attachment of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JLCCI)*, Vol. 19, No, 24, pp. 421-440. 2019. DOI : 10.22251/jlcci.2019.19.24.421
- [12] Cohen, S., and Wills, T. A.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 Bulletin*, Vol. 6, No. 1, pp. 310-357. 1985.
- [13]J. H. Wee and G. P. Cho. "An Analysis Of Structural Relations among Children's Perceived Family Strength, Self-Resilience, Social Support, Stress-Coping Behavior, and Psychological Well-Being,"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JLCCI)*, Vol. 14, No. 8, pp. 237-264. 2014.
- [14]Mak, W. W., Cheung, R. Y., Law, R. W., Woo, J., Li, P. C., and Chung, R. W. "Examining attribution model of self-stigma on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people with HIV+/AIDS." *Social Science & Medicine*, Vol. 64, No. 8, pp. 1549-1559. 2007.
- [15]Sarason, I. G., Levine, H. M., Bashsm, R. B., and Sarason, B. R. "Assessing social support: The support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44, No. 1, pp. 127. 1983.
- [16]C. H. Lee and E. J. Lee. "The Relationship among Academic Self-Efficacy, Academic Emo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Vol. 27, No. 4, pp. 157-177. 2014.
- [17]M. S. Choi.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Family Strength, Social Support, Ego-Resilience, Hope, Peer Relational Skills and Problem Behavior of Adolescents," *Departmen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Dong-A University Busan, Korea*, 2013.
- [18] J. H. Joe and K. J. Park. "Do implicit theories of intelligence, school goal structure, and social support influence adolescents'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Vol. 17, No. 3, pp. 55-71. 2010.
- [19]G. Y. Kang. "Effects of family strengths and school adjustment on the sense of community of children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competenc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2015.
- [20]S. H. Jeong and M. Y. Sim. "A Study on the Juveniles's Stress of Their Adjustment to School Life and the Mediate Effect of Social Support,"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4, No. 9, pp. 275-284. 2104. DOI : 10.5392/JKCA.2014.14.09.275
- [21]J. C. Cho and J. S. Kim. "Impact of Adult College Students' Social Support and Service Quality of University Education on Learning Engagement: Focusing on Medium Effect of Learning Motivation."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9, No. 2, pp. 251-259. 2023.